

자치경찰제 2년...시민 절반 "제도 모르고 변화 못 느껴"

조선대에서 학술대회...교통안전 원스톱 센터 신설 등 논의 45.2% '자치경찰 신뢰'...주민 참여 비율 제고 방안 마련을

자치경찰제가 시행 2년째를 맞았지만 광주시민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자치경찰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명 중 5명이 제도 시행 이후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21일 조선대에서 열린 '광주 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방안' 학술대회에서 공개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정애 경찰대학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주민 참여 확대, 교통안전 원스톱 센터 신설, 지구대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를 맡은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광주 시민 1460명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자치경찰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13.4%,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29.7% 수준이

었다.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1%에 그쳤다.

제도 시행 후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시민의 비율도 50%에 달했다.

광주자치경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45.2%가 '신뢰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렸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에 머물렀다.

자치경찰이 해야 할 일로는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 (44.2%)과 '사회적 약자 보호' (33.7%)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약자 보호 대상으로는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이 꼽혔는데 이 중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30.1%), 여성 대상 범죄(23.7%)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25.6%), 가해자 재범 방지 대책 마



21일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열린 '광주 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방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련(23.9%), 신속한 경찰 수사(24.5%) 등이 중요하다고 꼽혔다.

또 범죄 예방 활동으로는 '경찰 순찰 활동을 강화해달라' (20.4%)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방법 용 CCTV 설치(19.4%), 도로 조명 시설 확대(14.1%), 자율방범대 등 주민참여형 순찰

(13.8%)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한편 명도현 남부대 교수는 자치경찰제에서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자치경찰의 '정책자문단 운영', '청년서포터즈112'라는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

하지 않으며,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관리와 운영의 권한까지 주민에게 이양되는 수준의 참여를 제안했다.

'광주형 자치경찰의 미래전략' 발제를 맡은 장일식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은 '교통안전 원스톱 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경찰서 민원실, 구청, 관할 지구대 등 교통민원을 원스톱으로 지정해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센터를 세우자는 제안이다.

지역 경찰 운용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세종 조선대 교수는 지구대 운영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광주형 자치경찰 모델을 위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 경찰관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명문화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선우 광주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국가사무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에서 경찰조직의 인사, 예산 권한을 갖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위임을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진실화해위 "함평 보도연맹사건·민간인 학살로 55명 희생"

1950년 발생 두 사건 진실규명

27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1일 1950년 함평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민간인 학살사건 등 2건에 대해 "민간인 55명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1차 회의를 열고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총 3건의 안전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월께 함평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33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의해 집

단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1949년 6월 좌익계 인사들을 전향시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창설했다가 6·25 전쟁이 나자 군·경을 동원, 30만명에 이르는 연맹원 대부분을 학살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97.1%)하는 20~30대(88.2%) 비무장 남성으로 신광면, 손불면, 월야면, 학교면 등 함평군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1950년 7월 23일께 함평경찰에 의해 나산면과 대동면 야산 등지에서 살해됐다.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2월부터 이듬해인 1951년 6월까

지 함평군에서 민간인 20명이 지방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이장을 비롯해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30~50대(55%)와 남성(75%)이 주로 희생됐으나 10세 이하, 60대 이상과 여성 희생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5%가 농업에 종사했고, 35%는 이장, 면사무소 직원, 역무원 등 이었으며 20%는 15세 이하 아동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 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국가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학교 화장실 이렇게 바꾼다

시교육청, 냉난방시설·파우더 공간 등 편의시설 설치키로



광주 시교육청이 감성 공간과 냉·난방 시설을 갖춘 화장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내 집같이 안락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따뜻한 화장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한 화장실 공간에 파우더·휴게·감성공간을 추가하고 각종 편의시설(조감도)을 설치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쉬는 시간에 작동하도

록 시간 제어가 가능한 냉·난방기와 악취 제거를 위한 공기순환기도 설치된다. 화장실 냉·난방기는 학교밖 시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인프라다. 시교육청은 화장실 개·보수시 활용하도록 화장실 기본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학생, 교직원 등 이용자들이 공간 구성과 디자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겨울방학에 5개교(고1교·중2교·초2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시교육청 오근배 교육시설과장은 "화장실 사용자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내 집같이 따뜻한 화장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유통 식품 대부분 곰팡이 독소에 안전

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등 187건 조사...울무가루 '부적합' 판정

광주에서 유통되는 식품 대부분이 곰팡이 독소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 등 다소비 식품 48개 품목, 187건을 대상으로 곰팡이 독소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울무가루 1건을 빼고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B1, 총 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등 곰팡이 독소 5가지를 검사했다.

부적합 울무가루에서는 제랄레논 성분이 기준치를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 등을 거쳐 유통을 차단했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전했다.

미숫가루 등 14건에서는 푸모니신, 제랄레논이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허용 기준 이내였다.

곰팡이 독소는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생성되는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사 산물로 제랄레논은 유산이나 불임, 푸모니신은 간과 신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교육청, 24일 전문대 입학정보박람회

광주시교육청이 24일 '2023학년도 호남권(광주지역) 전문대 입학정보박람회'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층(배드민턴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광양보건대, 광주보건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동강대, 목포과학대 등 호남권 19개 전문대학이 참여한다.

참가 학생들은 대학별로 설치된 부스에서 입학 관계자들로부터 대학과 전공, 학생 선발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받고 상담도 할 수 있다. 수시원

서 현장접수도 진행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사전신청은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전문대학 대입전형 안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빛고을꿈트리 진로진학상담밴드(band.us/@kwangjuipsi)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만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